

### 美 애견가 사이에 개 DNA 테스트 확산

그동안 범죄 수사나 혈연 확인 등에 국한돼 사용하던 유전자(DNA) 분석의 비용이 저렴해지면서 미국의 애견가들 사이에 개의 DNA 분석을 의뢰하는 사례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6월 24일 로스앤젤레스 타임스에 따르면 얼마 전까지만 해도 DNA 테스트는 대개 친부 또는 친모를 확인하거나 유전적 질환 분석을 포함한 건강진단, 성범죄 또는 살인 사건 등 범죄수사 등에 활용되어 왔으나 이제 1회의 미용에 드는 비용보다도 싸지면서 함께 생활하는 개의 유전자를 확인하는 일을 쉽게 볼 수 있다는 것. 개에 대한 개념(유전체) 지도는 인간과 생쥐, 쥐, 침팬지에 이어 5번째로 2005년 완성됐으며 개에 대한 상업용 유전자 분석은 미국애견협회(AKC)가 155종에 이르는 개들의 확실한 혈통을 확보키 위해 맨 처음 실시한 이후 일반에 파급되기 시작했다.

AKC는 이 조사를 통해 전체 강아지의 약 13%가 잘못된 혈통으로 표시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현재 미국 내에서 개의 DNA 테스트를 실시해주는 업체가 약 6곳에 이르고 이들 업체는 개 전시 쇼나 인터넷을 통해 DNA 테스트를 적극 홍보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테스트 자료를 내놓고 있지 않지만 회사별로 많게는 수만마리씩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AKC는 1998년부터 약 40만개에 이르는 순수 혈통의 부계(父系) 및 모계(母系) DNA를 확보하고 있다.

개의 DNA 테스트는 ▲모계 및 부계의 증명 ▲혈통 ▲질병과 연관된 유전자 변형 규명 등 크게 3가지로 분류되며 이런 DNA 테스트는 조류의 암수 구별 등 다른 애완동물에도 적용될 수 있다.

4년 전 워싱턴동물보호소에서 잡종견 ‘드레이크’를 데려온 월슨씨 가족의 경우 이 개가 ‘스페니얼’ 종과 ‘플랫 하운드’ 종 사이에 태어났다는 보호소 직원의 말과 달리 높이 1m 이상의 울타리를 쉽게 뛰어넘는 등 양치기 개의 습성을 보임에 따라 65달러를 내고 DNA 테스트를 실시했다.

그 결과 월슨씨 가족은 ‘드레이크’가 시베리안 허스키를 위주로 하고 코커 스페니얼과 래브라도 리트리버의 피가 일부 섞여 있다는 사실을 알아낼 수 있었다.

애리조나 주(州) 길버트에서 살고 있는 켄 러브레이디씨는 “당신이 동물 애호가라면 (DNA 테스트를) 하지 않고는 배길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로스앤젤레스>장익상 특파원(isjang@yna.co.kr)

2007년 6월 25일

### 美 60대 할머니, 선거인명부에 애완견 이름 등록

미국의 60대 할머니가 선거인명부 관리의 허술함을 지적하기 위해 애완견을 명부에 올린데 이어 검찰의 가벼운 벌금형 제안을 뿌리치고 정식 재판을 진행키로 결정해 결과가 주목된다.

7월 1일 로스앤젤레스 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시애틀을 포함하는 워싱턴 킹카운티내 인구 8만3천명의 페더럴웨이에서 사는 제인 발로그(66)씨는 2000년 대통령 선거와 2004년 워싱턴 주지사 선거 과정에서 드러났던 선거인 명부 관리의 문제점을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이의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다. 4마리의 개와 5마리의 고양이를 키우며 혼자 살고 있던 발로그씨는 지난해 초 애완견종 호주산 셰퍼드와 테리어종이 섞인 개 '던컨 M. 맥도널드'의 이름으로 전화를 개설한 뒤 전화 영수증을 근거로 킹카운티 선거인 명부에 등록했다. 선거인명부 등록이 부정확함은 물론 그런 조작이 얼마나 쉬운 일인지 입증시키겠다는 발로그 할머니의 결심대로 명부 등록 이후 3차례 선거가 실시됐고 그때마다 발로그 할머니는 던컨 앞으로 배달된 부재자 투표 용지를 받았다. 발로그 할머니는 투표용지에 '무효(void)'라고 표시하고 겹봉에는 개 발바닥 모양을 그리면서 "선거인 명부 등록의 허점을 지적하기 위해 이런 행위를 했으니 문제점들을 바로잡아달라"는 내용의 편지를 동봉해 발송했다.

마침내 선관위 관계자들이 조사한 데 이어 카운티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고 검찰측은 발로그 할머니에게 "10시간 자원봉사와 벌금 250 달러를 낼 것"을 제안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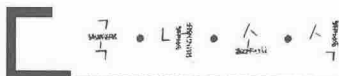
처음에 발로그 할머니는 검찰측 제안을 받아들였지만 애원하는 듯한 던컨의 시선과 마주하는 순간 마음을 바꿔 법정 싸움을 하기로 작심했다.

더구나 발로그 할머니가 개 이름으로 등록했다고 거듭 실토했음에도 여전히 명부에 던컨의 이름이 남아 있는 것도 법정 싸움을 계속하겠다는 결심을 도왔는데, 선관위측은 이름을 지우기 위해서는 정식 절차를 밟아 청문회를 열어야 하는 등 "명부에 이름을 올리기도 삭제하는 것이 훨씬 어렵다"고 실토했다.

발로그 할머니에 대한 사전 심리는 오는 11일부터 시작될 예정이며 유죄가 인정될 경우 최대 징역 1년형까지 예상되는데, 이번 사건을 접하는 지역 여론도 지지와 반대로 크게 엇갈리고 있다.

이 지역의 인기있는 보수 성향의 라디오 대담 프로그램에서는 발로그 할머니의 행동이 매우 기발하다며 환영했지만 워싱턴주 최대 발행 부수를 자랑하는 시애틀타임스는 사실을 통해 분명한 위법행위라고 지적하는 등 발로그 할머니의 행위는 한동안 지역민들의 관심을 집중시킬 전망이다. <미국 로스앤젤레스>장익상 특파원(isjang@yna.co.kr)

2007년 7월 2일



## “흥기로 개 찌르면 폭력행위”〈전주지검〉

검찰, 찌는 개 찌른 김제 40대男 기소

찌는 개를 술집에 흥기로 수차례 찢러 동물병원 응급실로 실려 가게 한 40대 남성에게 검찰이 이례적으

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폭처법)을 적용, 엄벌의지를 밝혀 관심을 끌고 있다.

7월 3일 전주지검에 따르면 전북 김제시에 사는 김모(45. 무직)씨는 지난 3월19일 밤 12시10분께 술을 마시고 집으로 가던 중 같은 동네 손모씨의 집 앞에 설치된 개집 앞에서 잠시 발길을 멈췄다.

개집에는 사냥개의 일종인 ‘알래스카 말라뮤트’ 3년생이 있었다.

호기심이 발동한 김씨가 가까이 다가가 구경을 하는 순간 경계심 품은 알래스카 말라뮤트는 그를 향해 마구 짖어대기 시작했다.

순간 화가 난 김씨는 급히 집으로 달려가 부엌에서 흥기를 들고 와 개집 안에 있던 개의 몸통을 흥기로 마구 찢었다.

일방적으로 가슴을 당한 손씨의 개는 결국 과다 출혈로 응급실 신세를 지게 됐고 주인은 수술비로 70여 만원을 내야 했다.

통상적으로 개나 고양이 등 애완동물을 다치게 하면 이를 재물로 보고 형법상 재물손괴죄를 적용, 약식으로 벌금형에 처해졌다.

애초 사건을 맡은 경찰도 단순 재물손괴로 보고 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그러나 김씨가 흥기를 휘두른 점을 감안, 지난달 말 이례적으로 김씨를 폭처법 상 집단·흥기등 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했다.

폭처법상 집단·흥기 재물손괴는 법정형이 1년 이상의 유기 징역으로 규정돼 있어 법원이 검찰의 판단대로 혐의를 인정하면 김씨는 징역형을 살게 될 수도 있다.

검찰 관계자는 “반려 동물’이라는 말이 있듯 개도 인간과 동등하게 봐야지 함부로 하면 안된다”며 “흥기를 이용해 개를 마구 찢은 점을 감안, 벌금형이 없는 폭처법을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장하나 기자(hanajjang@yna.co.kr)

2007년 7월 3일

### 🐾 끔찍한 동물학대인가 예술인가

토끼를 약물로 죽여서 목을 잘라 리본 장식을 한 후 화병에 꽂고, 닭이나 새의 눈알을 뽑아 난초 꽃에 붙인 후 사진을 찍는 여성작가 나탈리아 에텐몬트(37)의 작품이 청담동 박여숙 화랑에서 소개되고 있다.

우크라이나 알타에서 태어나 구소련 체제를 겪은 후 스웨덴으로 이주한 작가는 어려서 부모를 잃고 5년이나 이혼하는 등 거듭된 불행으로 아직도 정신세계가 불안한 작가다.

전시회 때마다 동물학대 논란을 일으키면서도 매진된 자신의 작품에 대해 작가는 “식물을 꺾는 것과 무엇이 다르냐”고 반문한다.

조채희 기자(chaehee@yna.co.kr)

2007년 6월 26일

📍 인사위, 지역인재 추천채용 50명 확정

중앙인사위원회는 6월 21일 지역인재의 고른 등용을 위해 도입한 '지역인재추천채용제'의 최종 합격자 50명을 확정 발표했다.

합격자는 행정직 25명, 기술직 25명으로 이 가운데 여성은 24명 48%를 차지, 지난해 20명 40%에 비해 다소 늘었다.


위원회는 “지역별로 인재를 균형있게 선발하자는 취지에 따라 특정지역의 대학 출신비율이 합격자의 10%인 4명을 넘지 않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지역별 합격인원은 서울·부산·대구·대전·경기·강원·충남·경북·경남이 각각 4명이고, 광주·전남·제주는 각각 3명, 인천·전북 각각 2명, 충북 1명이었다.

합격자의 평균 연령은 25.5세였고 최연소자는 김우숙(22. 경북대학교 수의학), 최고령자는 김상범(32. 제주대학교 해양산업공학)씨다.

선발된 직원은 내년 2월에 기본교육을 받은 후 3월부터 각 부처에 배정된다.

지역인재추천채용제는 지방대학 출신의 공직진출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각 대학으로부터 학과 성적 상위 5% 이내, 영어성적 토익 775점 이상인 우수 학생을 추천받아 공직적격성평가(PSAT)와 구술시험을 통해 인턴으로 선발하는 제도로, 3년의 인턴기간을 별다른 문제없이 이수하면 6급 정식 공무원으로 채용된다.

한편 이번 응모에는 전국 109개 대학이 모두 293명을 추천해 5.9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고 인사위는 밝혔다. 이강원 기자(gija007@yna.co.kr) 

2007년 6월 21일

※ 본 지면은 (주)연합뉴스와 정보사용계약 체결을 통해 관련 기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 기사 <저작권재(c)연합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